

LG전자 차세대 첨단 물류로봇 국산화 '맞손' CJ대한통운

물류로봇 공동개발 MOU 체결
LG전자 '클로이 캐리봇' 활용
곤지암 허브에 로봇솔루션 공급

LG전자와 CJ대한통운이 첨단 물류로봇을 개발해 물류 산업으로 확대한다. 양사는 15일 경기도 동탄에 있는 CJ대한통운 'TES이노베이션센터'에서 물류 로봇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다양한 물류 거점별 최적화된 로봇 운영 프로세스 구축 ▲주문받은 상품을 찾아 분류하는 AMR(자율주행운송로봇) 기반의 오더피킹(Order picking) 시스템 공동개발 및 고도화 협력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내 로봇 솔루션 적용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협력의 핵심인 AMR은 주문에 따라 정해진 위치로 자율 주행해 이동 후 작업자가 상품을 피킹해 실으면 다음 포장단계로 이송하는 로봇이다. 기존 AMR이 기본적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오가는 형태라면 오더피킹 AMR은 다양한 상품 위치를 파악해 최적 동선을



LG전자 클로이 캐리봇.

/LG전자

로 이동한다.

AMR을 활용한 작업자는 담당 구역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킹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양사는 향후 오더피킹 AMR 고도화를 통해 작업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고객 주문을 효과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양사는 이르면 내달 CJ대한통운의 대형 물류거점인 메가허브 곤지암에 L

G 클로이 캐리봇(CLOi CarryBot)과 물류센터 내 시설 연동 솔루션, 다수의 로봇 제어를 위한 관제 시스템 등 물류로봇 솔루션 공급을 시작한다. 이후 CJ대한통운의 다른 물류 거점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로봇 솔루션 적용이 이뤄지면 향후 추가 기술 개발도 가능할 전망이다.

LG전자는 국내 최대 물류 거점을 통

해 데이터와 운영 노하우를 쌓아온 CJ대한통운과의 협업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물류 로봇 시장에서 LG전자의 솔루션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는 하드·소프트웨어 최적화와 시스템 커스터마이징을 맡고, CJ대한통운이 물류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등을 설계하면서 첨단 물류센터 구현에 다가선다.

양사의 물류로봇 공동개발은 해외 기술에 의존하던 첨단 물류로봇을 국산화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물류로봇 공동개발은 전 세계적인 물류센터 첨단화 트렌드에 발맞춰 물류 시장 혁신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클로이 캐리봇이 차세대 물류로봇으로 활용된다. 자율주행과 초고속통신, 관제 기술력으로 수십대 이상이 동시에 움직이며 물건을 목적으로 운반하는데 특화됐다. 무인운반차(AGV)에서 스스로 경로를 찾아 이동하는 차세대 물류로봇인 자율주행로봇(AMR)으로 진화한 형태다. 지난달 전파인증을 마치고 POC(기술 검증)를 위해 국내 대형 물류거점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LG전자장익환BS사업본부장은 "물

류 로봇은 다수의 로봇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인공지능부터 5G 통신까지 아우르는 고도화된 기술력을 요구한다"며 "LG전자는 다양한 공간에서 로봇을 운영하며 쌓아온 기술 역량을 토대로 솔루션 기반의 로봇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 김경훈 TES물류기술연구소장은 "이번 공동개발로 구축된 로봇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물류 혁신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물류로봇 개발을 시작으로 최첨단 물류센터를 구현해 대체 불가능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로봇을 미래사업의 한 축으로 삼고 발전시켜온 ▲자율주행 ▲센서 ▲AI ▲카메라 등 핵심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호텔, 병원, 식당 등 다양한 공간에 최적화된 로봇 솔루션을 선보이며 데이터와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앞으로 물류 로봇 공급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물류거점에서 최종소비자에 전달하는 라스트마일(Last mile) 배송 전반에 걸친 물류 솔루션 구축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김승호·김재용 기자 bada@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 '폐기물 매립 제로' 국제 검증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 인정 폐기물
창원공장 폐기물 96.8% 재활용

현대모비스가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국제 검증 기관으로부터 '폐기물 매립 제로' 사업장으로 인정받았다.

현대모비스는 국제 안전 검증 시험 기관인 UL로부터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을 생산하는 창원공장이 '폐기물 매립 제로(Zero Waste To Landfill)' 검증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폐기물 매립 제로 검증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번 검증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녹색 경영 성과도 인정받게 됐다.

이는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 사례로 현대모비스 창원공장은 폐기물 재활용률 96.8%를 인증 받아 '골드' 등급을 획

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UL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는 비율에 따라 실버(90~94%), 골드(95~99%), 플래티넘(100%) 등급을 부여한다.

창원공장은 지난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총량 2967톤 가운데 2871톤을 재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와 고철, 폐합성수지류 등을 원자재나 연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다시 자원화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창원공장의 폐기물 제로 검증을 시작으로 국내외 64개에 이르는 전체 사업장의 재활용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현재 현대모비스 전체 사업장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70% 미만"이라며 "이 비율을 오는 2025년까지 90%까지 끌어올려 국내외 전 사업장에서 폐기물 매립 제로 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제조 산업인 자동차 산업 특성상 자원 재활용이 쉽지 않지만, 현대모비스는 폐기물 배출에서 운반, 처리까지 폐기물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자원 순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위탁 폐기물에 대해서도 위탁 업체가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탄소 중립이라는 근본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2040년까지 국내외 전 사업장에서 소비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양성문 기자 ysw@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GS칼텍스, MS와 디지털 플랫폼 환경 구축

'마이크로소프트 365' 도입

GS칼텍스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용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 환경을 구축한다.

15일 GS칼텍스는 업무 생산성과 문서관리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높은 보안성 유지가 가능한 마이크로소프트 365(이하 M365)를 전사 도입해 디지털 플랫폼 환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M365는 사무용 소프트웨어 제품인 '오피스 365'에 ▲아웃룩(Outlook) ▲

팀즈(Teams) ▲원드라이브(OneDrive) 등 다양한 디지털 업무 지원 솔루션들과 강력한 보안, 디바이스 관리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토털 비즈니스 클라우드 서비스이다.

GS칼텍스는 2022년을 '근원적인 혁신을 의미하는 딥 트랜스포메이션(Deep Transformation)'을 실행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비즈니스와 디지털 영역에서 이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 GS칼텍스가 도입한 M365 역시 딥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디지털 업무 환경을 구축해왔다.

이번 도입을 통해 GS칼텍스는 가장 먼저 통합형 모던워크(Modern-Work) 방식의 사무 환경을 기반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커뮤니케이션, 회의, 문서, 보안 등에 대한 창의적 업무 환경을 조성해 워크플로우를 개선하고 각 업무 영역 간 연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M365 기반의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면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로나 똑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회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허정운 기자 zelkova@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렉서스 코리아가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렉서스 뉴 제너레이션 NX & UX 300e 론칭 미디어컨퍼런스를 열고 순수 전기차 'UX 300e'와 최초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NX 450h+'를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렉서스, 첫 전기차 출격... 플라인업 공개

순수 전기차 'UX300e' 등 출시
'NX 450h+'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렉서스가 국내에도 전동화 전략을 본격화했다.

렉서스코리아는 15일 NX 450h+와 NX350h, UX300e를 출시했다.

이번 모델은 전동화 비전인 '렉서스 일렉트라이드' 일환으로, 국내에는 처음 출시하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와 완전 전기차(BEV)다. 이미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이 98%에 달하는 상황, PHEV와 BEV로 라인업을 확대하며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복안이다.

2세대 NX는 '렉서스 드라이빙 시그니처'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새로운 GA-K 플랫폼으로 더 가볍고 강하면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고, E-Four 시스템으로 안정성도 강화했다. 2.5L 4기통 엔진에 PHEV 모델은 전기모터를 추가해 최고출력 307마력을 낼 수 있다. EV모드만으로 56km를 달릴 수 있어 국내 하루 평균 주행 거리인 40km를 상회했다.

특히 NX 450h+는 LG전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활용한 렉서스 커넥트로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유플러스 드라이브' 기반으로 모바일 TV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사양도 대폭 업그레이드 했다.

후면 새로운 레터링 로고도 특별한 부분이다. 그 밖에 U자형 패턴의 스핀들 그릴과 실내 조명 '멀티 앰비언트 일루미네이션'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도 더했다.

UX300e는 렉서스 최초의 전기차로, 하이브리드 기술 노하우를 그대로 BEV에 녹여냈다. GA-C 플랫폼에 쇼크업소버와 프론트 서스펜션 기어박스 추가 브레이크 등으로 특별한 가속감과 승차감을 구현했고, 하이브리드보다 41L나 넓은 305L 트렁크 공간도 갖췄다. 소음도 최소화했다. 주행거리는 최대 233km다.

/김재용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